

☀ 설명 포함 강조 모드

오늘 수업에서는 **사동 표현**과 **인용 표현**을 중심으로 배웠어요. 선생님 말투와 리듬 그대로 살려서 정리해 볼게요!

🐱 사동 표현

- 자, 애들아~ **사동이 뭐다?** 바로 시키는 거야, 시키는 거! 누가 누구한테 뭘 하게 하는 거. 예를 들어~ **먹이다, 올리다, 앉히다!** 이런 거 다 사동이야~ ✓ **시험에 꼭 나온다!**
- 그럼~ **통사적 사동**과 **파생적 사동** 차이 한 번 보자?
- ✓ **통사적 사동**은 '~하게 하다'처럼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고,
- ✓ **파생적 사동**은 접사가 붙어서 **완전 다른 단어**가 되는 거야! 예: **먹다 → 먹이다**
- ✓ “담이 높다” → “담을 높이다” 이렇게 바뀌면서 **새로운 주어**가 생긴다!
- ★ **사동주?** 시키는 사람!
- ★ **피사동주?**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!

📌 **피동이랑 헷갈리지 마라잉~** 피동은 당하는 거고, 사동은 하게 만드는 거야!

- ✓ **직접 사동**은 사동주가 같이 행동하는 거고,
- ✓ **간접 사동**은 시키기만 하고 직접은 안 해!
- 예시 나간다~
- “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” → ✓ 직접도 되고 ✓ 간접도 된다!
- “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” → ✓ 이걸 간접만 된다!!
- 이거 헷갈리면 안 돼! ★ ★ **시험에서 낸다!**

인용 표현

애들아, **인용 표현**은 누가 한 말을 문장 안에 집어넣는 거지~

- ✓ **직접 인용:** 말한 그대로! 따옴표(“ ”) + ‘라고’
- ✓ **간접 인용:** 의미만 전달! 따옴표 없음 + ‘고’

자~ “내가 먼저 발표할게.” 이걸 직접 인용하면 어떻게 해? - “내가 먼저 발표할게.” **라고** 했다! - 간접은? 발표하겠다고 했다!

- 여기서 중요한 거! **이거 진짜 자주 나와요!!**
- ✓ **시간 표현** 바뀐다: ‘내일’ → ‘다음 날’
- ✓ **높임 표현**도 바뀐다: ‘앉으세요’ → ‘앉으라’
- ✓ **지시 표현** 바뀐다: ‘여기’ → ‘거기’

그리고 인용 표현 왜 쓴다? ✓ **전문가 의견, 신뢰성 강조!** 이럴 때 쓰는 거야!



완전 기록 모드

사동은 시키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지 않고,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. 예: 먹이다, 올리다, 앉히다. 어렵지 않죠?

통사적 사동은 ‘~하게 하다’처럼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고, 파생적 사동은 접사가 붙어서 아예 새로운 단어가 돼요. 예: 먹다 → 먹이다.

“담이 높다”를 사동으로 바꾸면? → “담을 높이다.”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목적어로 바뀌죠.

사동주? 시키는 사람! 피사동주?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! 헷갈리지 마세요. 피동은 ‘당하는 것’이지만 사동은 ‘하게 하는 것’이에요.

직접 사동은 사동주가 같이 행동함. 간접 사동은 시키기만 해요. - 예) “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” → 직접도 간접도 가능 - “입게 하셨다” → 간접만 가능

인용 표현 봅시다. - 직접 인용은 따옴표랑 ‘라고’ 사용 - 간접 인용은 ‘고’만 붙음

“내가 발표할게” → 직접 인용: “내가 발표할게.”라고 했다 / 간접 인용: 발표하겠다고 했다

표현이 바뀔 때 시간 표현, 지시 표현, 높임 표현도 함께 바뀌는 거 잊지 마세요.

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은 전문가 의견이나 믿음을 줄 때 유용하다는 것도 기억해요!